

‘보다 더, 보다도, 보다는’ 비교 구문의 의미화용적 특징

황 현 동*

I. 서론

본고에서는 ‘보다’를 포함한 비교 표현인 ‘보다 더, 보다도, 보다는’이 사용된 차등 비교 구문들이 가지고 있는 화용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각 표현이 가지는 의미의 차이가 공통 요소인 ‘보다’에 결합한 부사 ‘더’, 보조사 ‘도, 는’이 가지고 있는 화용적 추론의 힘에 의해 유발되는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이들 비교 표현이 어울릴 수 있는 형용사에도 차이가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이들 비교 구문의 의미 차이와 형용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인 비교 구문은 비교 기준과 견주었을 때 서술어가 나타내는 척도상에서 비교대상의 상대적인 위치를 말해준다. 이때 ‘보다’에 결합한 요소가 비교 기준으로, 비교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위치를 서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는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차등 비교 구문은 (1)의 예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1) 정원이는 민창이보다 크다.

(1)은 정원이라는 비교 대상의 크기를 민창이라는 비교 기준의 크기를 바탕으로 견주는 구문이다. 이와 같은 차등 비교 구문은 기존에 전체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presupposition)와 관련지어 논의되어 왔다. 우선 (1)의 예문과 같은 비교 구문은 정원이라는 비교 대상의 존재를 전제한다고 이야기되었다(Levinson 1983: 183). 그러나 비교 구문이 단순히 비교 대상의 존재에 대한 전제만을 가지는 것 같지는 않다. 대상의 속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승명(1992: 106-7)는 비교 구문이 비교 대상과 비교 기준이 서술어가 의미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전제를 가짐을 보인다. (1)과 같은 비교 구문이 ‘정원이는 크다.’와 ‘민창이는 크다.’를 전제하고, 그 정도를 비교하여 정원이가 더 큰 사람임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1)이 아니라 (2)의 예문에서 확인되는 듯하다.

(2) 정원은 민창이보다 더 크다.

(2)는 정원이가 크다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1)에서는 정원이가 크다고 말하기 어렵다. 단순히 두 사람의 크기를 비교할 뿐이라는 것이다. 두 예문에서 보이는 차이는 부사 ‘더’의 유무이다. 이러한 부사 ‘더’에 대하여 하길중(1999: 233)에서는 ‘더’가 우세의 뜻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오경숙(2010: 130-3)은 ‘보다’ 자체의 의미는 중립적이고 ‘더’가 비교 대상이 서술어가 표시하는 속성의 정도를 더 가지는 것을 표현한다고 보고 있다.¹⁾ 그러나 (1)과 (2)의 차이가 단순히 ‘강조’ 정도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은 비교 대상과 비교 기준이 가지는 속성의 정도의 차이만을 전주는 것이며, (2)는 ‘더’에 의하여 정원이가 크다는 것이 전제된다는 것이다. 결국 ‘더’가 전제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3)처럼 ‘보다도, 보다는’이 포함된 구문은 ‘보다’나 ‘보다 더’ 비교 구문과는 또 다른 추론이 유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가)에서는 정원이가 크다는 것이 추론된다. 반면에 (3나)는 정원이가 그리 크지는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오경숙(2010: 132-4)은 (1)과 같은 구문은 ‘더’가 생략된 구문이라고 보고, (2)에서 ‘더’가 실현된 것과 비교해 ‘오’로 실현된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두 구문이 모두 ‘우등’ 비교를 나타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더’의 출현에 따라 비교 구문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3) 가. 정원은 민창이보다도 크다.

나. 정원은 민창이보다는 크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 ‘보다’에 어떤 요소가 결합하느냐에 따라 비교 구문에서 추론되는 의미가 달라진다. 그런데 비교 구문과 관련해 기존 연구는²⁾ ‘보다’ 혹은 ‘보다 더’를 주로 다루고, ‘보다도, 보다는’에 관심을 가진 것은 송홍규(2016a, b) 정도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비교 구문의 의미와 전제는 ‘보다’만 보거나 ‘보다 더’만 보아서는 안 되고 보조사가 결합된 ‘보다는, 보다도’까지 포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들은 ‘보다’를 공통적으로 가지면서도 추가되는 형식이 무엇이나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1)과 같이 ‘보다’만 쓰인 비교 구문은 단순히 대상이 지니는 속성의 정도를 비교하는 중립적인 비교 구문으로 본다. 그리고 부사 ‘더’, 보조사 ‘도, 는’이 가지는 화용적 의미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이 결합한 ‘보다 더, 보다도, 보다는’이 사용된 비교 구문에 각 요소들의 의미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 이들의 차이를 확인할 것이다.

그런데 비교 구문은 비교 대상과 비교 기준의 속성을 같은 척도에서 표현할 수 있을 때 성립된다. 이렇듯 두 대상을 척도에 나타내기 때문에 비교 구문의 서술어로 형용사가 자주 쓰인다. 그러나 모든 형용사가 비교 구문에 아무런 제약 없이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교 표현에 따라 이와 함께 쓰일 수 있는 형용사가 달라진다. (4)의 예문을 보자.

(4) ²정원은 민창이보다는 더럽다.

(4)는 (3나)와 마찬가지로 ‘보다는’이 사용되었지만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이것이 ‘보다는’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연유한 것으로 볼 것이다. 마찬가지로 ‘보다 더, 보다도’ 역시 각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따라 공기할 수 있는 형용사가 달라지고 서술어가 부정형으로 나타날 때 양상에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양상의 차이를 살피는 것은 각 표현들이 가지

2) 여기에는 김봉모(1990), 오경숙(2010), 이승명(1992) 등의 연구가 있다.

는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각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보다 더’ 비교 구문의 의미화용적 특징

‘보다 더’ 비교 구문은 ‘보다’ 비교 구문과 달리 비교 대상과 비교 기준이 서술어가 나타내는 속성을 가짐을 전제하는 듯하다. 이에 대해 살피기 위하여 (1)과 (2)를 다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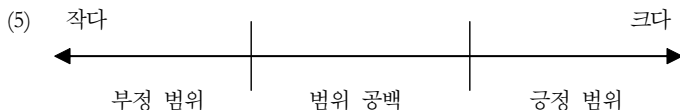
(1) 정원이는 민창이보다 크다.

(2) 정원이는 민창이보다 더 크다.

(1)과 (2)의 예문은 서로 다른 화용적 의미를 가진다. (1)은 정원이가 큰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민창이와 비교해 크다는 것만을 의미한다. 반면 (2)는 정원과 민창이 모두가 큰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이에 대해 이성범(2014)는 이러한 차이가 ‘더’가 전제 추론을 유발하여 생기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 주장에 동의하며 이와 같은 의미 차이가 생기는 이유에 대하여 더 살피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비교는 비교 대상과 비교 기준이 가지는 속성의 위치를 건주는 표현이므로 이들을 같은 척도상에 표현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빨간 것과 파란 것을 두고 빨간 정도를 비교할 수 없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³⁾ 두 대상을 같은 척도 위에 나타낼 수 있을 때만 비교 구문이 가능하다. 이때 위 (1, 2)에서 제시한 ‘크다’와 같은 정도성 형용사는 크기의 정도를 표현할 수 있고, 비교 구문을 가능케 하는 서술어이다. 이때 ‘크다’는 ‘작다’와 짝을 이루며 (5)와 같은 척도를 가진다.

3) 정인수(1998: 78-80)은 ‘사과가 바나나보다 더 붉다.’와 같은 예를 통하여 붉지 않은 것과 붉은 것을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설명한다.



(5)의 그림은 Klein(1980: 24-6)에서 제시된 형용사의 척도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형용사 ‘크다’가 나타내는 척도를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제시된 긍정 범위(positive extension)란 일반적으로 크기가 크다고 판단되는 범위를, 부정 범위(negative extension)는 크기가 작다고 판단되는 범위를 말한다. 범위 공백(extension gap)⁴⁾이란 크지도 작지도 않은 부분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도성 형용사는 그것의 반의어와 함께 양 끝이 개방된 하나의 척도로 표현될 수 있다. 정도성 형용사를 서술어로 사용한 비교 구문은 이러한 척도상에 비교 대상과 비교 기준을 나타내고 그 위치를 건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서술어가 나타내는 척도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은 비교 구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데 Klein(1980: 6)에 따르면 정도성 형용사는 모호성(vagueness)을 가진다. 정도성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은 특정한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를 아래 (6)의 예에서 살펴보자.

(6) 가. 정원은 크다.

나. 정원은 매우 크다.

(6가)는 크기를 척도로 나타냈을 때, 특정한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정원이 그 척도의 가운데 정도, 즉 평균적인 정도와 비교해 크에 가까운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특히 큰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던 맥락에서 (6가)가 주어진다면 정원은 상당히 큰 사람으로 이해될 것이다. 이와 같이 (6가)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기준이다(Klein 1980: 6-10). 이러한 점을 생각해보다면, 정도성 형용사는 단순히 어떤 속성을 서술하기보다는, 비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6나)의 의미는 비교 구문의 의미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6

4) 범위 공백에 대하여 정인수(1991: 169)은 ‘중간 지역’이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나)는 (6가)의 문장에 부사 ‘매우’가 더해진 형태인데 이와 같은 부사는 정원이가 큰 사람임을 보증한다. 다시 말해, (6가)에서 맥락에 의해 주어지던 정원의 가능한 크기의 범위가 (6나)에서는 ‘매우’로 인해 좁혀진다는 것이다. 결국 ‘매우’와 같은 부사는 정원의 크기가 (5)와 같은 척도에서 긍정 범위에 들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Klein 1980: 24-7).

(6)의 두 예문처럼 (1)과 (2)의 예문을 이해할 수 있다. (1)의 예문은 단순히 정원과 민창이의 크기의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할 뿐이다. 그러나 (2)의 예문에서 부사 ‘더’는 부사 ‘매우’처럼 정원의 크기를 긍정 범위로 한정하게 한다. ‘더’가 서술어 ‘크다’를 수식하면서 정원의 크기가 큼의 속성의 긍정 범위에 위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더’와 ‘더하다’가 연관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한다면, ‘더하다’가 가지는 의미, 즉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하고 이와 비교하여 속성이 더 많음을 나타낸다는 것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겠다. 부사 ‘더’가 이러한 의미와 관련을 가진다면, (2)에서 민창이가 크고, 이와 비교해 크다는 속성이 더 많은 것이 정원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2)의 정원과 민창이는 둘 다 큼의 속성을 긍정 범위의 수준에서 가지게 된다. 이처럼 ‘더’와 같은 부사는 ‘보다’에 의해 설정된 단순한 비교 기준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술어가 나타내는 속성의 정도의 범위를 한정하여 비교 대상이 서술어가 의미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한다고 할 수 있다.

‘보다’와 ‘보다 더’의 이러한 의미 차이는 (7)의 예문을 통해 더 확실해진다.

(7) 가. 정원은 작지만, 민창이보다 크다.

나. [?]정원은 작지만, 민창이보다 더 크다.

다. ^{*}정원은 작지만, 진우는 정원보다 더 크다.

(7나)와 같이 (7가)에 ‘더’가 첨가되면 문장이 어색해지는데, 이는 앞에서 정원이가 작다는 것을 말하지만 뒤의 절 ‘민창이보다 더 크다’는 정원이가 큰 사람임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즉, 앞과 뒤의 절이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색해진다는 것이다. 반면 (7가)는 단순한 비교로, 정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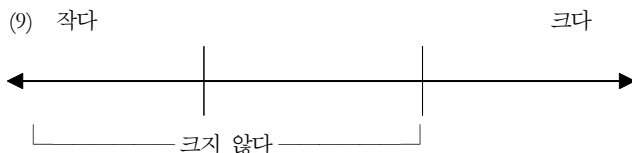
5) 앞에서 표현한 바대로 이야기한다면, 큼의 속성에서 ‘긍정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 민창이에 비해 큰 쪽에 조금이라도 가까우면 되기 때문에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7다)에서는 (7가, 나)와 달리 정원이가 비교 기준이 되는데, 이때 역시 정원이가 크다는 것이 전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원이가 작다는 것을 먼저 제시하면, ‘진우는 정원이보다 더 크다.’가 제시될 때 두 절의 의미가 상충이 되므로 (7다)는 어색해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정도성 형용사가 ‘보다 더’ 비교 구문에 부정형으로 결합하면 다소 어색한 느낌이 든다. (8)의 예를 통해 이를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8) [?]정원은 민창이보다 더 크지 않다.

(8)의 예는 부정 표현이 어디를 부정하는지에 따라 2가지 정도로 해석이 나뉘는 듯하다. ‘않다’가 ‘크다’와만 연결되거나, 문장 전체에 연결되는 경우의 2가지라는 것이다. 이때 문장 전체에 연결될 경우 ‘정원은 민창이보다 더 큰 것은 아니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게 되어 어색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실제로 ‘크지는 않다’처럼 서술어를 분리하면 어색함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크지 않다’가 하나의 서술어가 되어 ‘더’의 수식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렇기에 (8)의 예가 어색해지는 것으로 보인다.⁶⁾ 이때 (8)의 예문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9)의 척도를 보며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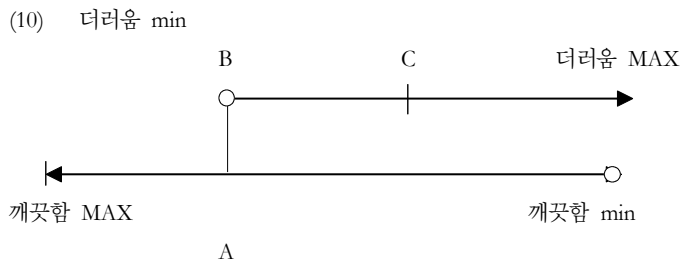
(9)는 (5)의 척도에서, ‘크지 않다’라는 서술어가 나타낼 수 있는 영역을 표시한 것이다. ‘크지 않다’는 ‘크다’고 칭할 수 있는 범위를 제외한 부분을 가리키기 때문에 ‘크다’의 척도에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정도성 형용사의

6) 두 해석 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인 부정문들을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8)의 발화만을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고려하여 (8)이 어색한 문장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척도는 이처럼 범위 공백이라는 중간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지 않다’는 작음의 영역과 중간 지역을 포괄한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 비교라는 것은 서술어와 관련된 척도에서 비교 대상과 비교 기준의 위치를 건주는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앞서 ‘더’가 비교 대상의 속성을 서술어의 척도의 긍정 범위에 들게 함을 이야기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8)의 정원이 역시 ‘크지 않음’의 긍정 범위에 들게 될 텐데, ‘크지 않음’의 영역에서 어느 쪽이 ‘더’ 크지 않은 부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9)의 척도에서 왼쪽은 ‘크지 않다’에 가까워지기 보다는 ‘작아지는’ 것이다. 단순히 반대 방향이 ‘더’ 크지 않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8)의 예는 정원과 민창이의 ‘크지 않음’의 정도를 척도 위에 나타낼 수 없어서 어색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도성 형용사와는 다른 척도를 가지는 형용사와의 결합에도 ‘보다 더’의 전제 의미가 영향을 미친다. 이들 형용사의 척도를 살피는 것 역시 비교 구문의 의미파악에 도움을 줄 것이다. 여기서는 Rotstein & Winter(2004: 14)에서 제시된 것을 바탕으로 (10)과 같이 이들의 척도를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정도성 형용사가 양 방향이 개방⁷⁾된 하나의 척도로 표현될 수 있다면, ‘깨끗하다’와 ‘더럽다’는 서로 짝을 이루어 (10)과 같은 척도를 갖는다. 이때 두 형용사의 짝은 정도성 형용사처럼 하나의 척도를 이룬다기보다는 각각의 척도를 갖는다. 이 경우, 깨끗하다는 것은 (10)의 A점을 기준으로 깨끗함의 척

7) 그렇기 때문에 정인수(1998: 69)에서는 이와 같은 형용사를 개방 척도 형용사라고 일컬었다.

도에서 왼쪽에 있을 때를 이야기한다. 깨끗함과 그렇지 않음을 나누는 지점은 A지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더럽다’는 것은 맥락에 따라 C를 기준으로 나누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B와 C 사이가 더럽지 않은 것은 아니다. 조금이나마 덜 더러울 뿐이다. 결국 B의 오른쪽에 위치하면 더러운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 기준 C가 설정되고, 덜 더러움을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은 형용사의 짝이 이러한 관계를 가질 때 ‘깨끗하다’류의 형용사는 완전 형용사(total adjective)라고 하며, ‘더럽다’류의 형용사는 부분 형용사(partial adjective)라고 말한다(Rotstein&Winter 2004: 7-9).⁸⁾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척도를 고려하여 (11)과 같은 예문의 의미를 살피도록 하겠다.

- (11) 가. 정원이는 민창이보다 깨끗하다.
 나. 정원이는 민창이보다 더 깨끗하다.
 다. 정원이는 민창이보다 더럽다.
 라. 정원이는 민창이보다 더 더럽다.

정도성 형용사에서와 마찬가지로, (11가)와 (11다)의 예문은 각각 (10)의 척도에서의 정원이와 민창이의 속성의 위치를 단순히 건준다. 그리고 ‘더’가 비교 대상의 속성을 한정해준다면 (11나)는 정원이이 깨끗하다는 것을, (11라)는 정원이이 더럽다는 것을 보증할 것이다. 그렇다면 (11나)의 정원이와 민창이는 (10)의 척도를 기준으로 A의 왼편에 위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1라)의 정원이와 민창이는 더러움의 척도에서 ‘더’의 힘에 의해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이 보증된다. 그런데 이러한 형용사들도 부정형으로 ‘보다 더’와 결합하면 어떤 형용사인지에 따라 수용 가능한 정도가 다른 모습을 보인다.

- (12) 가. 정원이는 민창이보다 더 깨끗하지 않다.
 나. ²정원이는 민창이보다 더 더럽지 않다.

(12가)에서는 ‘보다 더’에 의해 정원이와 민창이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이

8) 이는 Rotstein&Winter(2004: 7-9)에서 제시된 용어로, 적당한 역어(譯語)를 찾지 못하여 우선 완전·부분 형용사로 갈음해두었다.

전제된다. 이때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10)의 깨끗함의 척도에서 A의 오른쪽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도성 형용사와는 다르게, 완전 형용사인 ‘깨끗하다’와 같은 형용사는 깨끗하지 않은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듯하다. 이는 두 종류의 형용사가 서로 다른 척도를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정도성 형용사와는 달리, 이들 형용사들은 중간 지역을 가지지 않는다. 예컨대 완전 형용사인 ‘깨끗하다’의 경우, (10)의 A를 기준으로 왼쪽은 깨끗한 부분, 오른쪽은 깨끗하지 않은 부분으로 나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깨끗하지 않음’의 정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심해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 반의어의 짝을 이루는 형용사들이 각각의 척도를 가지기에 그 정도를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10)의 A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깨끗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12가)는 정원이와 민창이 모두 깨끗하지 않은 쪽으로 매우 가까우면서 정원이가 (10)의 척도상 더 오른쪽에 위치하게 됨을 의미한다.

한편 (12나)는 정원이와 민창이가 더럽지 않음을 전제한다. 그런데 부분 형용사인 ‘더럽다’는 조금이라도 더러우면 더러운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더럽지 않다’는 것은 더러움이 없는 것이 되므로, ‘깨끗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때 ‘더럽지 않다’는 것은 (10)의 척도에서 B의 왼쪽에 위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확인했듯이 ‘더럽지 않다’가 서술어로 사용된 비교 구문이라면 우리는 더러움의 척도에 이들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더러움의 척도에 B의 왼쪽은 존재하지 않아 여기서는 정원이와 민창이의 위치를 표시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12나)의 문장이 어색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III. ‘보다도’ 비교 구문의 의미화용적 특징

‘보다’에 ‘더’를 첨가한 비교 구문이 전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보다도’가 포함된 비교 구문은 이와는 또 다른 추론을 일으킨다. 이를 살피기 위하여 (13)을 제시한다.

(13) 가. 민창이는 정원이보다도 작다.

나. 민창이는 난쟁이보다도 작다.

다. *민창이는 난쟁이보다도 크다.

라. *민창이는 농구선수보다도 작다.⁹⁾

(13가)는 민창이와 정원이가 둘 다 작고, 그 범위 안에서 두 대상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송홍규(2016a: 325)는 이에 대하여, ‘보다도’가 결합한 비교 기준은 서술어가 의미하는 속성을 매우 많이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13나)와 같은 예문에서 난쟁이는 매우 작을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보다도’와 결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반면 (13다)에서와 같이 ‘크다’와 관련해 난쟁이는 일반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보다도’와 함께 쓰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13라)와 같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구 선수는 ‘보다도’와 결합할 때 ‘작다’라는 서술어와 함께 쓰일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보다도’의 의미를 생각하면, (13가)의 정원은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기에 민창이도 작다는 것이 추론된다.

그러나 송홍규(2016a)는 ‘보다도’라는 비교 표현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이야기할 뿐, 보조사 ‘도’의 어떤 의미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어떤 언어 표현의 의미는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가지는 의미와 그들이 결합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렇다면 보조사 ‘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보다’와 결합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보다도’를 포함하는 비교구문의 의미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홍사만(2002: 134-5)는 보조사 ‘도’가 쓰이는 용법 중 극단 예시를 나타내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극단 예시는 당연히 일어날 것이라 예상했던 사실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나 반대를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는 경우를 가리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를 전개할 때 쓰이는 ‘도’의 의미와 역할을 홍사만(2002: 134)은 아래 (14)와 같은 예문을 통하여 설명한다.

(14) 가. 그 사건으로 말단 직원들도 모두 해고당했다.

나. 그 사건으로 말단 직원들이 모두 해고당했다.

9) (13나, 다, 라)는 송홍규(2016a: 324)에서 제시된 예문을 다소 변형하여 나타낸 것이다.

다. 그 사건으로 관계 직원들이 모두 해고당했다.

라. 화자는 그 사건으로 말단 직원들이 모두 해고당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14가)의 예문은 해고당할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말단 직원들을 ‘도’에 결합시켜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한다. 보조사 ‘도’는 (14나)와 같이 ‘도’가 결합한 요소에 대한 진술이 참임을 의미한다. 동시에 (14다)와 같이 가능한 다른 요소들, 여기서는 관계 직원들에 대하여 그들도 해고당했다는 것을 함축하기도 한다. 여기까지는 ‘도’의 일반적인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14라)와 같은 의미가 함축되는 것이 ‘도’가 극단예시로 쓰인 경우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일어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13나)와 같은 예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난쟁이는 일반적으로 매우 작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13나)의 예문은 민창이가 그보다 작음을 말한다. 극단예시의 ‘도’에 따르면 민창이는 ‘난쟁이보다 작지 않을 것’이 기대되며, 일반적인 ‘도’의 의미에 따라서는 민창이가 ‘난쟁이 이외의 가능한 작은 것들보다’ 작다는 것이 함축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창이는 상당히 작은 사람임이 추론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13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비교 구문에서는 비교 기준, 즉 비교 표현들과 결합하는 명사구가 지시하는 대상을 화·청자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오경숙 2010: 49). 그렇다면 (13가)에서 정원이의 작은 정도는 화자와 청자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보다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교구문을 발화했다는 것은 해당 발화의 화·청자가 존재를 공유하고 있는 정원이가 상당히 작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화자는 민창이가 정원이보다 작지 않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보다도’를 사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3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3가)도 민창이와 정원이가 작음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보조사 ‘도’와 관련하여 최규련(2001: 308)은 ‘도’가 척도를 도입하는 용법으로 쓰일 경우 이에 대한 평가 ‘최댓값’이나 ‘최솟값’과 관련된 것은 근본적으로 지시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정 함축(conventional

implicature)을 가진다고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도’가 가능한 여러 선택항 사이에서 최댓값이나 최솟값을 선택하고, 그것이 함축이라는 추론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13나)를 살펴보면 난쟁이는 작을 것이 예상되므로, ‘작다’라는 서술어의 속성과 관련하여 난쟁이는 최댓값으로 평가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13나)의 민창이는 그러한 난쟁이와 견주어서도 작다고 진술된다. 그렇기에 (13나)는 민창이가 난쟁이보다 덜 작은 것들에 비해서도 작다는 것을 함축하게 된다. 결국 (13나)를 통해 우리는 민창이 역시 상당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유추해볼 때, (13가)에서 ‘보다도’에 결합한 정원이 역시 작음의 속성에서 최댓값에 가깝게 평가¹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창이는 정원과 견주어서도 작게 되므로 두 대상이 모두 상당히 작다는 것이 추론된다.

이처럼 ‘보다도’는 비교 기준이 서술어가 의미하는 속성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음을 함축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견중의 대상이 되는 비교 대상 역시 서술어의 속성을 많이 가진다는 추론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함축은 보조사 ‘도’가 가지는 힘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민창이는 정원이보다 작다.’라는 문장을 발화할 경우 앞서 살펴본 함축은 더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발화와 분리할 수 없는 대화 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이 아닌, 고정 함축이 유발된다고 할 수 있겠다.¹¹⁾ 이와 같은 ‘보다도’의 의미는 (15)를 통해 더욱 확실해진다.

(15) *민창이는 크지만, 정원이보다도 작다.

(15)의 예문에서 ‘정원이보다도 작다.’는, 앞서 살펴본 (13가)와 같이 민창이와 정원이가 모두 작은 사람임을 함축한다. 그러나 앞의 절에서 민창이가 크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과 뒤의 절이 서로 모순을 일으켜 (15)와 같은 예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2절에서 ‘보다’만 결합한 (7가)

10) 이는 (13가)와 같은 문장이 발화될 때의 화자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11) Potts(2005: 26-7)에서는 고정 함축이 대화 함축과 구별되는 기준 중 하나로 분리 가능성을 들고 있다.

와 같은 비교 표현은 단순히 두 대상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도’의 힘에 의하여 (15)가 어색해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보다도’가 유발하는 함축은 ‘보다 더’가 유발하는 전제와도 구별되어야 한다. 이를 살피기 위하여 (13가)를 다시 제시하고 (16)과 비교하도록 한다.

(13) 가. 민창이는 정원이보다도 작다.

(16) 민창이는 정원이보다 더 작다.

전제와 고정 함축을 구분하는 큰 요인 중 하나는 취소 가능성이다. 고정 함축은 해당 언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어휘적 의미(lexical meaning)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다른 표현으로 교체되거나 문맥에 따라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다(Levinson 1983: 203-4, Potts 2005: 32, Huang 2014: 75-7).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3가)와 (16)에서는 민창이와 정원이가 모두 작다는 의미가 추론된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가 추론되는 방법이 다른데, 이는 다음 (17)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7) 가. 민창이는 정원이보다도 작다.

*그런데 사실 민창이는 {작지 않다/크다}.

나. 민창이는 정원이보다 더 작다.

그런데 사실 민창이는 작지 않다/크다.¹²⁾

(17가)에서처럼 보조사 ‘도’의 의미로 인해 고정 함축이 발생한 경우는 그 의미를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17나)에서와 같이 전제의 추론 과정을 통해 가지게 된 의미는 후행 문장이나 화행적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이는 결국 ‘더’에 의해 발생하는 의미는 전제, ‘도’에 의해 발생하는 의미는 고정

12) ‘민창이는 정원이보다 더 작다. ?그런데 사실 민창이는 크다.’와 같은 예는 ‘그런데 사실 민창이는 작지 않다.’가 연결된 경우에 비하여 다소 어색한 면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7가)에서 제시된 것과 달리 어느 정도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예를 제시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함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다’라는 표현에 정도 부사 ‘더’가 결합하는지 보조사 ‘도’가 결합하는지에 따라 추론 과정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각 표현이 다른 화용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한편 ‘보다도’ 구문에서 정도성 형용사의 부정형이 결합할 때는, ‘보다 더’ 비교구문에서의 양상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이를 살피기 위하여 (18)을 제시한다.

(18) ²정원이는 민창이보다도 크지 않다.

(18)의 예문은 ‘보다도’에 의해 정원이와 민창이가 상당히 크지 않음이 함축된다. ‘보다 더’의 경우에서도 확인했듯, ‘크지 않다’는 것은 크기의 척도에서 특정한 영역, 즉 (9)와 같이 나타난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서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18)과 같은 예문이 어색해지는 것이다. 한편 완전 형용사와 부분 형용사의 짝들도 ‘보다 더’ 비교구문에서 확인한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듯하다. 아래 (19)를 통해 이를 살피도록 하겠다.

(19) 가. 정원이는 민창이보다도 깨끗하다.

나. 정원이는 민창이보다도 더럽다.

다. 정원이는 민창이보다도 깨끗하지 않다.

라. *정원이는 민창이보다도 더럽지 않다.

‘깨끗하다/더럽다’ 형용사를 사용한 ‘보다도’ 구문의 경우, 2절의 (11)과 (12)의 예문에서 확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19라) 정도만 어색한 모습을 보인다. (19가)는 두 사람 모두 깨끗한 사람이 함축되고, (19나)는 두 사람 모두 더러운 사람이 함축된다. 이는 앞서 ‘보다도’의 의미를 살펴보며 확인했던 바이기도 하다. 한편 (19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원이와 민창이가 둘 다 깨끗하지 않음이 함축되고, 그 중 정원이가 더 깨끗하지 않은 쪽에 위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라)가 어색한 이유도 (12나)에서 확인한 ‘더럽다’의 척도와 관련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어울리는 형용사의 종류나 형태를 살펴보면, ‘보다 더’와 ‘보다도’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듯하다. 다만 ‘보다도’가 ‘보다 더’와 다른 것은, 화자가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지 않는 태도가 보다 강하게 더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도 이야기했듯, 고정 함축이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 추론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IV. ‘보다는’ 비교 구문의 의미화용적 특징

비교 표현인 ‘보다’에 보조사 ‘는’이 결합한 형태인 ‘보다는’이 사용된 구문은 앞서 살핀 ‘보다 더’나 ‘보다도’ 구문과는 또 다른 의미를 추론하게 한다. 우선 (20)의 예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20) 가. 민창이는 정원이보다는 크다.
 나. 민창이는 난쟁이보다는 크다.
 다. *민창이는 난쟁이보다는 작다.
 라. *민창이는 농구선수보다는 크다.¹³⁾

(20가)는 민창이와 정원이가 둘 다 작고, 그 범위에서 둘을 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송홍규(2016a: 325)는 이에 대해, 서술어가 의미하는 속성을 적게 지니는 비교 기준에 ‘보다는’이 결합한다고 말한다. (20나)의 예문에서 난쟁이는 상당히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서술어인 ‘크다’와 관련하여 낮은 수준의 큼의 속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는’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쓰인다. (20다)와 같이 작은 대상인 난쟁이가 ‘작다’라는 서술어와 어울리면 어색해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20라)와 같이 일반적으로 클 것이 기대되는 농구선수에 ‘보다는’이 결합한 경우, ‘크다’라는 서술어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때 (20가, 나)에 ‘적어도’와 같은 표현을 첨가하면 자연스러운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이와 같은 표현이 첨가되면 (20나)의 경우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몰라도’ 난쟁이와 비교해서는 민

13) (20나, 다, 라)는 송홍규(2016a: 324)에 제시된 예문을 다소 변형하여 나타낸 것이다.

창이가 크다는 의미가 확실해진다. 이러한 의미는 비교 기준과 비교 대상이 서로 정도의 차이를 지님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보다는’이라는 표현은 두 대상 간의 대조의 의미를 더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20다)와 같은 예문이 가능하지 않음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난쟁이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작다고 기대되므로, 민창이가 그와 비교해 작다면 두 대상이 서로 작음의 속성과 관련해 대조가 되기 어렵다. 그렇기에 (20다)의 문장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다는’이 포함된 비교 구문은 비교 대상이 서술어와 관련된 속성을 지니지는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는 듯하다. 다시 말해, (20가, 나)에서 ‘민창이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정도가 추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보다는’의 쓰임과 관련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20나)에서 ‘보다는’은 난쟁이와 같은, 서술어의 속성과 관련해 하위의 비교 기준과 쓰이고, 민창이는 이와 ‘대조’하여 큰 것이다. 이때 오히려 난쟁이라는 작은 대상과 대조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민창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것이 추론된다. (20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원은 서술어의 속성과 관련된 하위의 비교 기준이 되어 크지 않은 사람이 추론된다. 이때 민창이는 정원이라고만 대조되는 것으로, 민창이가 큰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렵게 된다. 이는 (20가)의 뒤에 ‘그런데 민창이는 매우 크다’라는 문장이 덧붙을 수 없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보다는’의 의미를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 (20가)를 다시 제시한다.

(20) 가. 민창이는 정원이보다는 크다.

(20가)에 ‘그렇지만 민창이도 작다’와 같은 문장이 추가되면 어색하지 않지만, 앞서 말했듯 민창이가 크다고 하기는 어렵게 된다. 이는 비교 기준이 서술어와 관련하여 하위의 정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이와 대조되지만 다른 대안 집합들과의 관계에서는 부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보다는’에 의해 유발되는 함축은 Horn(1984: 13)에서 제기된 Q-원리를 통하여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에 의하면 ‘할 수 있는 만큼 말하라’는 대화의 기본 원리인 Q-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화자가 ‘...p...’를 발화할 때 (그가 아는 한) ‘...기껏해야(at most) p...’가 함축된다(Horn 1984: 13-4). (20가)는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정원이 외의 다른 가능한 비교 기준 대상들 중에서 정원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는’에 의해 강화된다. 그리고 이때 이 문장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문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대상들과 비교했을 때 민창이는 크다고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가)는 ‘기껏해야 정원이보다’ 큰 것이 되고, 민창이는 큰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20가)에는 ‘민창이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정도의 의미가 함축되는 것이다.

한편 홍사판(2002: 185)에서는 (20가)와 같은 예가 ‘민창이가 정원이 외의 사람보다 큰지 어떤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추론을 유발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20가)와 같은 비교 구문을 비교 대상과 비교 기준을 대조하는 데에 더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렇기에 비교 가능한 다른 대상들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Q-원리에 의해 선택되지 않은 대상들 X에 대해 ‘민창이는 X보다 크지 않다.’ 정도의 의미가 함축된다. 그리고 이러한 다른 대상들과 민창이, 정원을 크기의 척도상에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다른 대상들이 민창이에 비해 큰 쪽에 가깝게 위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보다는’의 추론은 (21)의 예문을 보면 대화 함축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1) 민창이는 정원이보다는 크다. 그리고 사실 민창이는 매우 크다.¹⁴⁾

(21)의 예를 보면 ‘는’의 힘에 의하여 함축된 의미가 맥락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예를 통해 우리는 ‘보다는’이 보조사 ‘도’에 의해 취소될 수 없는 함축을 유발한 ‘보다도’와 다른 함축 의미를 유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보다는’이 유발하는 함축은 취소할 수 있는 대화 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부사 ‘더’나 보조사 ‘도’에 의해 추론된 것과 다른 유형의 추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다는’이 포함된 비교 구문의 의미는 보조사 ‘는’이 가지는 대조의 의미로 더 강화된다. 결국 ‘는’의 의미로 ‘보다는’ 비교구문은

14) ‘민창이는 매우 크다.’와 같은 예가 민창이가 큰 사람임을 보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2절에서 살펴본 바 있다.

다른 요소들이 결합한 비교 구문과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보다 더, 보다도’와는 달리 ‘보다는’은 정도성 형용사의 부정형과 결합해도 어색하지 않다. (22)의 예문을 보도록 하자.

(22) 민창이는 정원이보다는 크지 않다.

(22)는 민창이와 정원은 사실 큰데, 그래도 민창이가 정원과 비교하여서는 큰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가진다. 앞서 살핀 ‘보다는’의 의미를 고려할 때, 정원은 서술어인 ‘크지 않음’의 속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큰 사람임이 함축되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창이는 ‘기껏해야 정원이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역으로, 민창이도 큰 사람의 범주에 들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보다는’의 의미가 그와 결합하는 서술어의 형태에도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보다는’은 부분 형용사(partial adjective)의 긍정형태와 결합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3)의 예를 보고 이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더불어 이것은 형용사의 척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에, 척도 (10)을 다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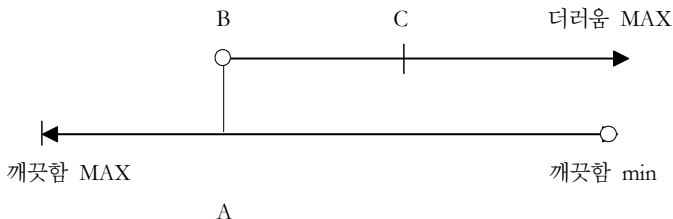
(23) 가. 민창이는 정원이보다는 깨끗하다.

나. ?민창이는 정원이보다는 더럽다.

다. 민창이는 정원이보다는 깨끗하지 않다.

라. 민창이는 정원이보다는 더럽지 않다.

(10) 더러움 min



앞서 살펴본 ‘보다는’의 함축 의미를 고려한다면, (23가)는 민창이는 사실 더러운데, 정원이와 비교해서는 깨끗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때 민창이와 정원이는 모두 깨끗함의 척도에서 A의 오른쪽에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 그 척도 위에 놓인다는 것은 서술어가 의미하는 척도, 즉 깨끗함의 척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 결국 (23가)는 깨끗함의 정도에 대해서 말하는 명시적인 의미와, 사실은 더러움을 나타내는 함축된 의미를 척도 위에 나타낼 수 있기에 어색하지 않은 문장이 된다.

그러나 (23나)의 상황은 다소 다르다. (23나)가 함축할 수 있는 의미는 민창이와 정원이는 사실 깨끗한데, 이 둘을 비교했을 때 민창이가 조금 더 더러운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10)의 척도에서 볼 수 있듯, 깨끗하다는 것은 A의 왼쪽에 위치할 때를 이야기한다. (23나)와 같은 문장이 발화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더러움의 척도 위에 있어야 할 텐데 이것은 둘은 사실 깨끗하다는 함축 의미와 상충된다. 이처럼 함축되는 의미를 생각하면, 이들은 (10)의 척도 위에서 A의 왼쪽에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23나)는 더러움을 말하는 명시적인 의미와 깨끗함을 말하는 함축된 의미가 서로 다른 척도에 표현되어 어색한 문장이 된다.

한편 (23다, 라)의 의미는 (10)의 척도에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 민창이와 정원이가 사실은 깨끗하다는 함축을 유발하는 (23다)의 경우에는 민창이와 정원이가 모두 A의 왼쪽에 있고, 민창이가 그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존재하게 된다. 이 역시 예문에서 드러나는 명시적인 의미와 함축적인 의미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다. (23라)에서도 둘은 사실 더러운 사람이고, 그들은 B의 오른쪽에 함께 위치하며 그 가운데 더러움의 정도를 견주게 된다. 이처럼 (23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미의 상충이 이 두 예문에서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다른 요소가 결합하지 않고 단순히 ‘보다’만이 사용된 비교 구문은 특별한 추론을 더하지 않고 두 대상이 가진 속성의 정도를 견주기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를 포함한 비교 구문은 이에 부사 ‘더’,

보조사 ‘도, 는’이 결합하면서 각기 다른 화용적 추론의 과정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다른 화용적 의미를 가진다.

‘더’가 첨가된 ‘보다 더’는 부사 ‘더’가 가진 힘에 의하여 비교 대상의 속성이 해당 정도성 형용사의 의미를 긍정하는 범위로 옮겨지게 된다. 이에 따라 비교 대상이 서술어가 의미하는 속성을 지닌다는 전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정도성 형용사가 부정형으로 올 때 ‘보다 더’ 비교 구문은 어색해진다. 이는 정도성 형용사가 가지는 척도에 해당 구문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부분 형용사와도 함께 쓰이면 어색해지는데, 이 역시 해당 형용사의 척도에 그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보조사 ‘도’가 결합한 ‘보다도’ 비교 구문의 경우에는 ‘도’의 힘에 의하여 비교 기준이 서술어의 속성을 많이 지니고 있음이 상정된다. 결국 ‘보다도’ 비교 구문을 통해서 비교 기준보다 서술어의 속성을 더 지니는 비교 대상 역시 서술어의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론은 ‘도’에 의해 유발된 고정 함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다도’ 구문은 ‘보다 더’ 구문과 마찬가지로 정도성 형용사, 그리고 부분 형용사와 완전 형용사의 긍정형과 잘 어울릴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정도성 형용사나 부분 형용사의 부정형과 함께 쓰일 때는 어색해지게 된다.

또한 ‘보다는’ 비교 구문은 두 대상이 모두 서술어와 관련된 속성을 그리 지니지는 않는다는 함축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는 보조사 ‘는’이 지니는 대조의 의미가 영향을 끼친다. 보조사 ‘는’이 결합하여 ‘기껏해야’ 비교 기준보다 속성을 더 가진 것이라는 함축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때의 함축 의미는 ‘도’에 의해 유발된 고정 함축과는 달리 취소될 수 있다. 그리고 ‘보다는’ 비교 구문은 앞선 구문들과는 다르게 부분 형용사의 긍정형과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역시 ‘보다는’에 의해 추론되는 의미를 해당 형용사의 척도에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교 표현들이 가지는 의미는 부사나 보조사가 가지는 화용적 추론의 힘에 의해 일어난다. 그리고 이들은 전제, 고정 함축, 대화 함축이라는 서로 다른 화용적 추론에 의하여 유발되는 것으로 각각의 성격이 다른 추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추론된 의미는 각각의 표현들이 공기할 수 있는 형용사의 종류나 형태를 제약한다. 그리고 각 표현의 의미와 어울리는 형용사가 함께 쓰일 때, 해당 구문의 의미가 더욱 드러나게 된다.

다만 여기서, 각 비교 구문의 의미를 살피는 데 형용사의 종류를 보다 세세하게 고찰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덜’이 포함된 열세 차등 비교 구문이나 ‘처럼, 만큼’ 등 비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다른 구문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는 점도 부족한 부분이다. 이와 같은 점들에 대한 고민을 더 한다면 ‘보다’를 포함한 비교 구문들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봉모(1990), 「국어 건준말 연구」, 『한글』 209, 한글학회, 33-58.
- 송홍규(2016a), 「내재적 비교와 명시적 비교의 구분에 대하여」, 『언어학 연구』 38, 한국중원언어학회, 315-335.
- _____(2016b), 「차등 비교 구문과 정도차 표현」, 『동악어문학』 68, 동악어문학회, 145-169.
- 오경숙(2003), 「‘보다’ 비교구문의 의미와 정도성」, 『국어학』 41, 국어학회, 277-306.
- _____(2010), 『한국어의 비교 구문 연구』, 박이정.
- 이성범(2014), 「한국어 비교구문의 유형별 추론에 관한 실험화용적 연구」, 『언어과학』 21-1, 한국언어과학회, 131-150.
- 이승명(1992), 「국어 비교 구문과 전제」, 『수련어문논집』 19, 수련어문학회, 97-113.
- 정인수(1991), 「국어 형용사 반의어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19, 한민족어문학회, 165-185.
- _____(1998), 「국어 차등 비교 형용사 구문의 의미 연구: ‘보다 더’ 구문을 중심으로」,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67-81.
- 최규련(2001), 「국어 첨가 초점사의 의미 - ‘역시’와 ‘도’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8, 한국어의미학회, 291-321.
- 하길중(1999), 『현대 한국어 비교구문 연구』, 박이정.
- 홍사만(2002), 『국어 특수조사 신연구』, 역락.
- Horn, Laurence R.(1984), Toward a New Taxonomy for Pragmatic Inference: Q-based and R-based Implicature, *Meaning, Form, and Use in Context: Linguistic Applications*,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1-42.
- Huang, Yan(2014), *Pragmatics: 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Klein, Ewan(1980), A Semantics for Positive and Comparative Adjectives, *Linguistics and Philosophy* 4, Reidel Publishing Company, 1-45.
- Levinson, Stephen C.(1983),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tts, Christopher(2005), *The Logic of Conventional Implicatures*, Oxford University Press.
- Rotstein, C. & Winter, Y.(2004), Total Adjectives vs. Partial Adjectives: Scale Structure and Higher-Order Modifiers, *Natural Language Semantics*, 12(3), 259-288.

Stassen, Leon(2013), Comparative Constructions,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nline, Dryer, Matthew S. & Hanspelmath, Martin (eds.). (Available online at <http://wals.info/chapter/121>, Accessed on 2018-08-04.)